

천연기념물 흥도 54년만에 종합 학술조사



천연기념물 170호로 지정된 신안 흥도

/신안군 제공

문화재청 1965년 지정 이후 첫 조사 착수 1년간 생태계 변화 등 연구 관광정책 활용

신안 흥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 반세기 만에 생태계 변화 등에 대한 종합 학술조사가 진행된다. 6일 신안군 등에 따르면 흥도는 지난 1965년 천연기념물 170호로 지정됐다. 국내에서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흥도가 처음이다. 흥도란 이름은 섬 바위 전체가 홍갈색을 띠고 겨울엔 붉은 동백꽃이 섬을 뒤덮고 있는데서 유래했다. 향기가 10리까지 풍긴다는 대엽풍란 등 다양한 희귀식물과 동물류가 서식하고 있고, 요즘은 절벽을 노랑게 수놓고 있는 원추리 군락이 으뜸 볼거리다. 1981년에는 우리나라 최대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에, 2009년에는 유네스코생물권 보전지역에 지정되는 등 국내 최고의 섬

관광 명소로 꼽힌다. 하지만, 천연기념물 지정 이후 지금까지 종합 학술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변화하는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최근 흥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 54년만인 올해 첫 종합 학술조사 용역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조사는 국내 서남부 섬을 대표할 수 있는 자연박물관인 흥도의 수작단층과 경사지 층리 등 지질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 총 110과 336속 545종의 식물, 24종의 해조류, 10목 19과 55종의 조류 등 다

양한 생물변화조사도 이뤄진다. 조사 기간은 1년으로 사계절 생태를 관찰·연구해 보존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흥도를 중심으로 200m 이내 바다해역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동·식물, 지질·광물 및 연안생물, 문화자원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한다. 흥도에 속한 무인도에 대한 자료 조사 및 문화유적, 민속, 무형유산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된다. 이재근 신안군청 학예사는 “흥도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당시 보고서와 1987년 자연실태조사, 2003년 보존 및 정비 종합계획 연구외에 종합 학술조사 보고서가 없는 실정이다”며 “흥도에 대한 각 부문별 학술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속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방안을 모색해 급변하는 관광정책의 밑거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황금색 고운 빛 ‘비파 와인’ 뜬다

완도 지역 특화작목 육성 수영대회 만찬주 등 각광

완도군이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비파로 빚은 와인이 각광받고 있다.

6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폐회식 환송 만찬주로 완도산 비파 와인이 올랐다.

환송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 이용섭 조국위원장과 초청 인사, 국제수영연맹(FINA) 관계자 등이 참석해 비파 와인을 음미했다.

비파 와인은 감칠맛이 풍부하고 뒷맛이 깔끔하며, 부드러운 향이 특징이다.

이날 비파 와인을 처음 맛 본 사람들은 “황금색의 고운 빛깔에 먼저 시선이 가고, 향도 좋고, 달콤해서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비파는 잎의 모양이 중국 약기 비파와 닮아 이름이 붙여졌고, 황금색을 띠는 열매에는 베타카로틴과 칼륨, 비타



완도산 비파와인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폐회식 환송 만찬주로 사용되는 등 각광받고 있다.

/완도군 제공

민A, 무기질이 함유돼 있다. 특히 완도에서 재배되는 비파는 해풍을 맞고 자라 과즙과 향이 더 풍부하다.

비파 잎은 코로소린산, 우르솔릭산, 에피카넨, 아미그달린 등을 함유, 혈당 조절, 항산화, 중치 예방 등에 효과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파는 완도 대표 특화작목으로 시설 하우스 비파는 4월 중순, 노지 비파는 6월 상순부터 수확한다.

생과로 먹어도 좋지만 완도군에서는 비파 농축 주스, 비파 잎차, 비파 와인,

비파 식초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남도 전통술 품평회에서 과실주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 품질을 인정받은 바 있다.

/완도=최규욱 기자

진도 반려동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31일까지...미등록시 과태료

진도군이 오는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6일 진도군에 따르면 반려동물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 등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미등록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와 ▲등록대상동물 유실(10일 이내) ▲소유자 변경(30일 이내) ▲등록대상동물 사망(30일 이내) ▲소유자 주민등록상 주소 등 정보 변경(30일 이내) 등

변경사항 미신고 소유자이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새롭게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 미신고의 경우 내달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자진신고기간 내 군민 모두가 등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신안군 흑산면 천주교성당에서 ‘한여름 밤의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신안군 제공

신안 흑산성당 ‘한여름 밤의 작은 음악회’

‘색사 광주 앙상블 연주단’ 공동 주관

신안군 흑산면 천주교성당과 흥도공소에서 ‘한여름 밤의 작은 음악회’가 잇따라 열렸다.

지난 2일부터 이틀간 흑산 천주교성당과 ‘색사 광주 앙상블 연주단’이 공동 주관해 열린 이번 음악회는 주민, 관광객 등 약 2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색소폰, 오카리나, 아코디언 공연 등을 선보였다.

이어 지역기수 공연과 무료 생맥주 제공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다. 흑산성당은 서남해의 최남단에 위치한 흑산도에서 천주교가 전파되어가는 과정

을 잘 엿볼 수 있는 장소로 평가 받고 있다. 흑산성당은 선교활동과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주민회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오고 있다.

흑산 천주교성당 박상선 신부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과 신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번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 소외지역과 문화혜택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주민 안전 최우선” 폭염대응 총력전

해남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피해 최소화

해남군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력전을 펴고 있다.

6일 해남군에 따르면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가동에 들어갔다. 또 총괄상황반, 건강관리반, 시설관리반 등 3개반으로 구성된 폭염대응TF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폭염 정보 전달체계 구축과 취약계층 관리·지원, 영농작업장과 건설 현장 등 근로자에 대한 피해예방 활동 등에 역점을 두고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

폭염 특보시 주민들에게 문자서비스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더위체감지수와 행동요령 등 폭염 위험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마을 이장과 자율방재단 등을 활용해 차량 가두방송과 현장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1,746명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장, 노인돌보미, 사회복지사, 지역자율방재단, 공무원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 1,130명을 운영해 방문 및 안부전화로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관내 무더위 쉼터 572개소의 냉방기 고장 등 불편사항 신속 해소를 위해 안전신문고,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도로 그늘막을 현재 11개소에서 21개소로 10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생활권 더위를 식히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밖에 농작물과 가축, 양식장 등 농업 현장에 대해서는 병해충 방제와 전염병 방역 등을 위한 분야별 관리대책을 수립,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지도를 통해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폭염 취약계층과 노약자들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 행정책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며 “군민들도 폭염시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행동요령을 반드시 지켜주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클릭! 고향 소식



강진 삼인마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식

강진군은 최근 신전면 삼인마을회관에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식을 가졌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은 산불 발생의 주원인인 농·산촌지역의 ‘불법 소

각’을 근절하기 위한 마을 공동체의 자발적인 서약 참여 활동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불예방과 홍보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새마을지도자영암협의회, 버스정류장 청소

새마을지도자영암협의회와 신북면협의회는 최근 버스정류장 환경정화 활동에 나섰다.

회원들은 정류장 먼지와 때를 제거하고 물정소, 불법광고물 제거, 대기의자

청소 등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박 찬 회장은 “깨끗해진 버스정류장을 기본 좋게 이용하기를 바라며 공공시설에 대한 청결의식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영암 경로당 식중독 예방 점검

영암군영암읍은 복지회관과 마을경로당을 대상으로 집단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6일 영암군에 따르면 단체급식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대처 요령과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등을 교육하고 위생점검도 함께 실시했다.

정제기 읍장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음식물은 익혀먹고 끓여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